

산양리·山陽里

산양리·山陽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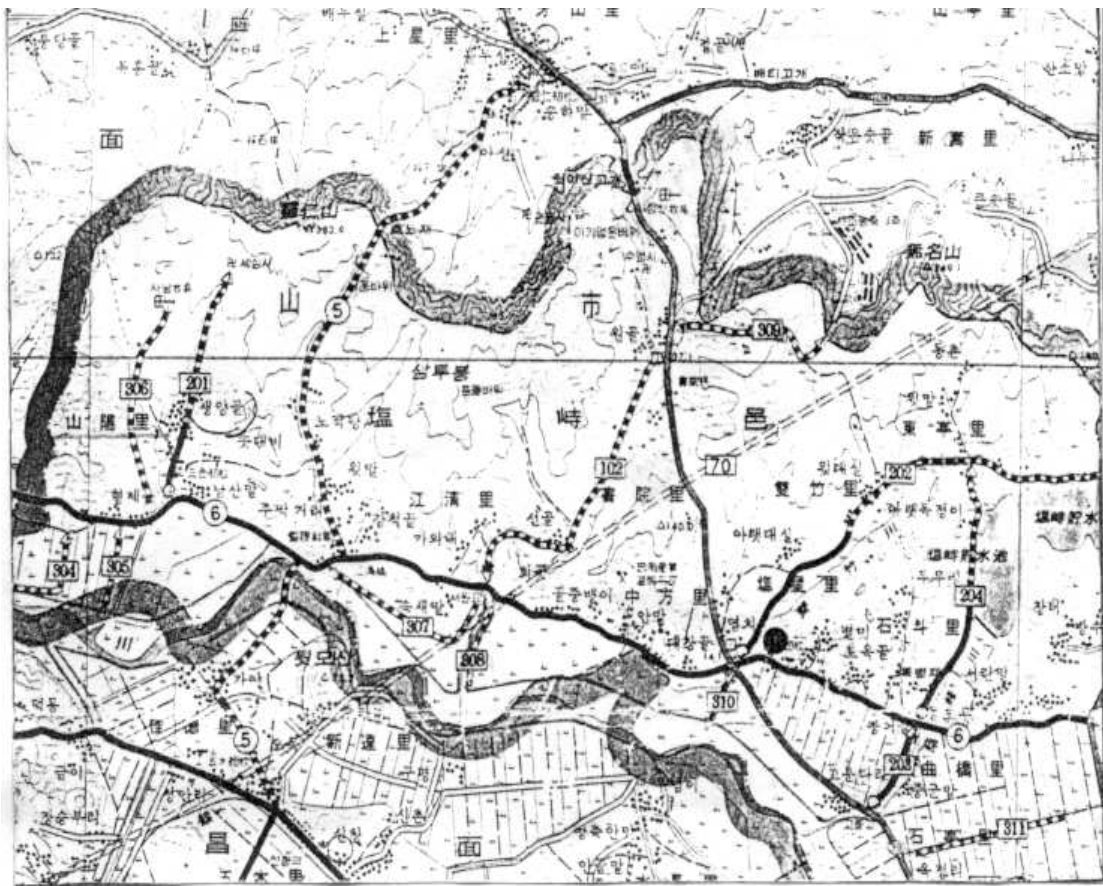
<구연자 : 아산시 염티읍 산양1리 오열수氏(77세)>

" 산양2리 김동하氏(73세)

" 산양3리 이정섭氏(78세) >

산양리는 염티읍의 한 마을로 작게는 샘골 혹은 생골, 형제동, 남산말이라는 세 부락으로 나뉜다. 산양리는 염티와 인주면 남성리로 통하는 형제교를 넘어서면 보이는 마을인데 총 388명의 인구와 12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산양리에서는 주로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산양리는 아산군 상세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형제동, 생양동을 병합하여 남산과 생양의 이름을 따서 산양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 산양리 위치도 >



☒ 생골, 형제동, 남산말 마을 (산양리)

산양1리는 생골마을이라 하며, 영인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찬샘이 있어 샘골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영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해서 산양뜸이라고도 한다.

산양2리는 형제동 마을이라 하며 산양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1914년에 산양리로 통합되었다가 1979년 2리로 분리되었는데 처음에 어느 형제가 이 마을을 이룩하였다하여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양3리는 남산말 마을과 솟대비 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남산말 마을은 생골 남쪽 산 밑에 위치하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게 되었으며, 솟대비 마을은 생골 아래 남산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솟대를 세웠다하여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또한 송죽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았다 하여 유래 되었다. 남산말 마을에는 염티 초등학교 삼서분교가 있다.

十세심사(洗心寺) 다층 석탑

세심사 다층석탑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31호로서 1990년 12월 31일 지정되었으며 본 탑은 고려시대에 청석(점판암)으로 만들어진 9층 석탑으로 원래는 옥신 없이 옥개석만이 연화대석 위에 얹혀진 채 대웅전 앞에 있었던 것을 1956년 일타, 도견 두 스님이 현재의 모습으로 옥신 및 기타 새로운 탑재석을 끼워 놓았다.

탑의 전체 높이는 약 390cm로 이 중 화강암 기단 높이는 75cm이고 점판암의 기단 높이는 102cm, 그리고 탑신부 및 상륜부가 213cm이다. 탑의 치석기법과 재질의 특수성 아울러 탑의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사당시 산양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생굴 마을은 위도 36-49-50, 경도 127-55-4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8km 정도 가다보면 201번 도로가 북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도로의 중간쯤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형제동 마을은 위도 36-49-20, 경도 127-55-00인 지역으로, 면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306번 도로와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자리잡은 마을이다.

남산말 마을은 위도 36-49-20, 경도 126-56-0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세하게는 면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에 201번 도로와 나뉘는 지점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강정리에서 인주쪽으로 가다보면 쉽게 찾을수 있다.

2) 현 황

생골마을의 총 인구는 206명으로 남자 90명, 여자 116명이다. 67세대가 살고 있는데 마을 인구의 51%는 농업에, 7%는 축산업에, 42%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형제동 마을은 총 인구가 87명으로 남자 49명, 여자 38명이며, 생골마을의 절반 수준으로 총 27호가 살고 있고, 주민 모두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살고 있다.

남산말 마을의 총 인구는 105명으로 남자 52명, 여자 53명으로 32호가 살고 있는데 그 중 8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생골 마을	206명	90명	116명
형제동마을	77명	46명	31명
남산말 마을	105명	52명	53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기 타
생골 마을	100%	51%	7%	42%
형제동마을	100%	100%	-	-
남산말 마을	100%	84%	-	16%

생골마을 농경지 면적은 논이 57.5ha, 밭 21ha 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와 병충해 방제기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 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노인회관을 겸하고 있다.

형제골 마을은 농경지 면적을 보면 논 40ha, 밭이 8ha로 밭농사가 매우 적다. 마을의 농기계는 경운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애플을 겸비한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남산말의 농경지 면적은 논 42.4ha, 밭이 7.4ha으로 이 마을 역시 밭농사 면적은 매우 적은 편으로 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마을의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종의 농기계를 약간씩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를 가지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생골 마을	78.5ha	57.5ha	21ha
형제동마을	48ha	40ha	8ha
남산말 마을	49.8ha	42.4ha	7.4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생골 마을	1개소	1개소	-
형제동마을	1개소	1개소	-

남산말 마을	1개소	1개소	-
--------	-----	-----	---

생골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김씨 27%, 강씨 3%, 이씨 18%, 기타 성씨는 52%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 50대~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형제동 마을은 김씨가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씨 19%, 기타 성씨가 59%로 나타나며 연령층은 60대~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산말 마을은 이씨가 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김씨 13%, 강씨 6%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산말 마을에 염티 초등학교 삼서 분교가 있어 이 마을 어린이들은 삼서 분교로 학교를 다닌다.

〈성씨별 분포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강씨	이씨	기 타
생골마을	67호	18호	2호	12호	35호
형제동마을	27호	6호	5호	-	16호
남산말마을	32호	4호	2호	9호	17호

- 최고령자

생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안씨 할머니로 104세로 장수하시고, 형제동 마을의 최고령자는 84세인 이 상현씨이다. 남산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허순(81세)로 아직도 정정하시다.

3) 자연 경관

생골은 뒤로 영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산 반대편엔 도로가 하나 나 있다. 도로 왼쪽으로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들은 마을 아래쪽에 있다. 이 마을엔 산이 많아 서 도로 대부분 산 사이로 나있다.

형제동마을은 도로 아래쪽 건너편으로 넓은 논들이 펼쳐져 있고 마을 뒤로는 산이 있으며, 이 산의 꼭대기는 평평한 지형이다.

남산말 마을은 서쪽과 남쪽이 도로와 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높은 산이 하나 있으며, 가옥은 도로와 산 사이의 골짜기쪽에 위치해 있고 가옥 주변에 논도 약간씩 분포해 있으며, 마을 위쪽으로는 염티 초등학교 삼서 분교가 자리하고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생골은 아산군 삼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형제동, 생양동을 병합하여 남산과 생양의 이름을 따서 산양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형제동마을과 남산말 마을도 생골마을과 변천과정이 동일하며, 1914년에 산양리로 통합된 후 1979년에 2리와 3리로 분리되었다.

5) 입 향

생골마을은 영월 엄씨가 20여대째 마을에 터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아 마을의 형성 시기는 서기 1400년경 약 600년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엄기호씨가 대대로 살고 있고, 형성된지는 형제동 형성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형제동 마을의 형성시기는 조선시대부터라 하며,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성씨는 영월 엄씨라는 말도 있고, 진주 강씨라는 이야기도 있다. 마을 일부 사람들 말로는 진주 강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고들 이야기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말로는 선조 16대손인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었을 때 영월 엄씨가 산양리에 와서 처음 뿌리를 내린곳이 이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내력은 알수가 없었다.

남산말 마을은 함천이씨가 처음 터를 잡아 살게 되었는데 산양리 자연부락중 가장 늦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정섭 씨가 15대째 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산양리는 적어도 마을 형성 시기는 서기 1500년경 약 500여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6) 지 명

十 생골마을 지명

- 생골 (샘골, 생양골) : 영인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찬샘이 있고 영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양지바른 곳이라는데서 유래한 산양뜸이라고도 함.
- 비래산 : 생골 앞에 있는 고운 산으로 비야산이라고도 함.
- 동심산 : 영인산 남쪽에 해당되며 고려 공민왕의 태를 이곳에 묻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가문다하여 쓰지 못하도록 함.
- 물바지골 : 중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냉천이 있음.
- 중상골 : 절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이 죽으면 이곳에서 화장하였다 함.
- 평풍바위 : 절골 막바지에 있는 바위로 병풍처럼 되었음.
- 냉천(한샘) : 물바지골에 있는 샘으로 큰 바위가 수십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처럼 되었고, 그 안에 찬샘이 있는데 정성을 드리고 그 물을 먹고 또는 목욕을 하면 모든 병에特效이 있다 하여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 샘에서 거머리가 나와서 무효라 함.
- 구충탑 : 세심사 대웅전 앞에 있는 탑으로 높이 12.7m, 수정암 오석으로 9층이 되었는데 몸은 전혀 없이 뚜껑만 쌓아 올렸으며, 아래 기단에는 곁잎 연꽃 무늬를 위 기단에는 홀잎 연꽃 무늬를 각기 새기었으며, 탑 꼭대기에 돌을 문질러서 붙으면 아들, 안 붙으면 딸을 낳는다 하여 여자들이 돌을 어찌 많이 문질렀던지 이지러진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도 더욱 파손될 염려가 있음.
- 세심사 : 절골에 있는 절로 약 1300년전 신라때 세웠다 함.
- 절골 : 영인산 남서쪽, 곧 생골에 있는 골짜기로 세심사가 있음.

十 형제동 마을 지명

- 형제동 : 생골 아래에 있는 남산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처음에 어느 형제가 이 마을을 이룩하였다 함.
- 형제교 : 형제동 앞에 있는 다리로 염티와 인주면 금성리로 통합.
- 통매산 : 마을 서쪽에 있는 산.
- 형제고랑 : 통매산 아래에 있는 고랑
- 트리고개 : 생골로 넘어가는 고개

十 남산말 마을 지명

- 남산말 : 생골 남쪽 산 밑에 있는 마을.
- 남산들 : 남산말 앞에 있는 넓은 들. 현재는 곡교천 개수공사로 공부정리 중에 있으나 전에는 산양리 앞 넓은 곡창지대로 유명함. 약 180만평 정도가 됨.
- 선돌바위 : 남산말 앞 길가에 서 있는 바위로 높이 3m, 넓이 1.5m의 큰 바위에 "남산평" "석자를 새기었으며, 주위에 지하수가 솟아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뭄이 들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었음.
- 숫대비 : 생골 아래 남산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송죽동이라고도 했으며, 이곳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다고 하며, 전에 숫대를 세웠고, 현재 염티초등학교 삼서 분교가 있음.

7) 전 설

□ 물바가지골 (생골마을 전설)

산양리 물바가지골에는 옛날에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편은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부인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기를 수십일,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부인은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스님이 찾아와 말하기를 산 속에 작은 못이 있는데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못에는 천년묵은 거머리가 있는데 그 거머리를 물리치려면 머리를 모두 잘라 태워 향을 피워야 한다고 했다. 여인은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스님과 그곳으로 향했다. 달이 흰하게 떠오르자 거머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부인은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

왔다. 거머리가 괴로워하며 꿈틀거리자 부인은 물을 담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목욕을 시키자,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다. 그 뒤로 못에는 차고 시원한 물이 솟는데, 정성을 드리고 그 물을 먹으면 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냉천"이라고 불리며 부정한 자가 그 물을 마시면 거머리가 나와서 약효가 없어진다고 전해진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생골마을은 특히 세심사라는 절이 있어 대부분 불교에 다니고 있어 무속신앙을 믿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계조직으로 마을끼리 대동계를 운영하고 있어, 애경사시 서로 돕고 있으며, 어버이날에 경노 잔치를 하고 있다.

형제동 마을은 특별한 마을 행사가 없다.

남산말에서는 현재는 지내지는 않지만, 가뭄이 들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선돌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十 허옥 (許沃: 이조)

자는 계심(啓心), 호는 술봉(述峯), 본관은 양천(陽川), 양천군 형손(亨孫)의 후예(後裔)이다. 영조조(英祖朝)에 문과에 급제(及第)하여 여러차례에 군읍(郡邑)을 맡아 다스렸는데 청백(淸白)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었다. 묘소는 아산군 염티읍 산양리에 있다. <조선 환여승람(朝鮮輿勝覽)>

10) 종교단체

생골 마을에는 기독교 1개소와 불교 1개소가 있는데 기독교로는 산양장로교회로 신도수는 50여명이며, 불교단체로는 아산시에서는 유명한 절로 꼽히는 세심사가 있다. 세심사는 역사가 오래 되고 널리 알려져 신도수만 해도 12,000여명도 넘는다.

신라 선덕여왕 27년 (645)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創建)했다고 하나 확실(確實)한 기록(記錄)이 없다. 본군(本郡)내 사찰중(寺刹中)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古刹)로 알려진 이 절은 원래(原來) 절 이름이 신심사(神心寺)였으나 1968년에 일타(日陀)스님과 도견스님이 세심사(洗心寺)로 개칭(改稱)했다. 이조 (李朝) 중종 25년 (1530)에 발간(發刊)된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이 사찰(寺刹)을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이며, 영인산 남쪽 사면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사역은 인위적인 축대에 의해 크게 2분되어 있음을 살필수 있는데 하단은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단은 대웅전을 비롯한 탑등으로 위치하고 있다. 상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의 중심부엔 점판암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9층석탑이 만들어져 있고, 탑의 뒤로는 대웅전이 위치하고 있다. 탑의 좌측으로는 현대식 건물인 요사 1동이 자리하고 있다. 우측으로는 밭으로 경작되는 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주초로 보이는 수개의 막돌담벽 주초석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대웅전의 좌측으로는 범종각이 있고, 대웅전보다 한단 높은 좌측으로는 석가여래 및 16나한을 봉안한 영산전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요즈음 새로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의 입구엔 부도 3기가 위치하며, 부도의 맞은 편에는 연못이 하나 있고, 도로 좌측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11) 공장현황

생골 마을에 있는 도자기 공장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공장이다. 이외에 형제동과 남산말에는 공장은 들어서 있지 않다.

12) 마을의 특성

생골 마을은 영인산이 마을을 둘러싸며, 산세가 수려하고 절골이라는 골짜기 막바지에 세심사라는 절이 있고 대웅전 앞에는 세심사 다층 석탑이 있으며, 생골과 형제동 마을 사이에 비래산이 있으며, 마을사람들 또한 전형적인 시골사람들의 인심이 물씬 풍기고, 애경사시 서로 자기일처럼 돕는 넉넉함이 있었다.

형제골 마을은 역시 영인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에 300~400년 가량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 정자가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주로 벼농사와 쪽과 농사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이 넉넉히 배어 나오는 시골 마을이다.

남산골 마을은 염치 초등학교 삼서분교가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 폐교가 되지 않고 현

재 30여명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벼농사를 위
주로 하고 있으며, 약간의 과수농사로 포도와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마을 역시 시골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